

# 북한 희곡에 나타난 이상적 여성-국민 창출의 양상

-1960년대 이전과 이후 이상적 여성-국민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이상우\*

## 〈차례〉

1. 문제제기
2. 1940~50년대 : 사상-생산 전사로서의 여성-국민 창출
3. 1960년대 이후 : 모성적 여성-국민 이미지의 강조
4. 결론을 대신하여

## 1. 문제제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성역할은 ‘공적 영역(public sphere)’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성의 성역할은 ‘사적 영역(private sphere)’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남성의 성역할로,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 가사를 책임지며 가족을 뒷바라지 하는 일은 여성의 성역할로 인식되는 것이 가부장적 사회의 전형적인 성별인식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구조는 가부장적 사회의 성별분업구조(the division of labour)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에 의하면 국민국가의 젠더전략은 크게 분

---

\* 영남대 교수

리형 전략과 참가형 전략으로 나뉜다. 근대 국민국가는 전시와 같은 국가적 위급상황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구에 의해 여성의 사회적 동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여성의 사회적 동원을 위해 국민국가가 구사하는 젠더전략이 크게 분리형과 참가형으로 대별된다는 것이다. 분리형 젠더전략은 여성을 국가의 필요에 의해 동원하되 ‘충직한 국민’의 출산과 양육, 근로 동원 등 생물학적 재생산(出産, reproduction)과 경제적 생산의 역할로 성역할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본의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만들어진 “남자는 국외 ‘전선(戰線)’으로 여자는 국내의 ‘후방(後方)’으로”라는 구호가 말해주듯이, 총력전 속에서조차 전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범위는 ‘집’의 안팎을 기준으로 구별되었던 것이다. 총력전 상황에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는 성별분업체제를 완고하게 유지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동원을 이끌어내는 여성동원 전략을 분리형 젠더전략이라고 말한다. 반면, 참가형 전략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여성을 동원하면서 과거에 남성의 성역할로 인식되었던 공적 영역으로 여성의 참가를 일부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 총동원체제 속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파시스트 국가들이 분리형 젠더 전략을 채택하여 여성의 참전을 허용하지 않은 반면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의 경우는 여성의 참전을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사례가 참가형 젠더 전략을 채택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국민국가의 젠더 경계(성별분업체제)를 최종적으로 해체시키는 여성 징병형의 참가형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어떠한 국가도 ‘출산, 양육, 가사’라는 여성의 근본적인 성역할 경계를 포기한 적이 없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의 여성 참전 허용은 젠더 경계의 부분적인 해체를 수락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국민국가의 젠더전략을 분리형과 참가형으로 나누는 것은 다소 도식

1)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1999. 63~74면.

적이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의 모든 국가가 가부장적 사회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성별분업체계라는 틀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작은 구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성별분업체계의 틀을 지탱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구분이긴 하지만 국민국가의 젠더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전시 또는 국가적 동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취하는 젠더전략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수립 시기, 전쟁기와 같은 국가 총동원 시기에 잠정적으로 참가형 젠더전략에 가까운 여성정책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젠더전략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특정 시기의 북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수립과정에서 매우 진보적인 여성정책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해방직후 이른바 ‘민중기지건설’의 과정에서 일련의 민주적 개혁입법을 시행하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946년 3월의 토지개혁법령, 6월의 노동법령, 7월의 남녀평등권법령의 제정, 공포이다. 1946년 7월 30일에 발표된 남녀평등권법령은 북한에서 최초로 남녀평등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제반 개혁입법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총동원체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는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여성의 예속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으며, 노동자와 더불어 여성은 해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적 여성관에 기인한다. 그러나 억압받는 존재로서 여성을 규정하고 여성의 해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적 여성관이 진보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제로 여성의 지

2)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48면.

위와 권리를 남성과 평등한 것으로 끌어올린 데에는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 건설과정에서 여성의 동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는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동원을 위한 합법적 근거로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북한 역시 여성의 사회적 동원을 위해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사회의 거의 전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동등한 임금 및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외형적으로나마 성별분업체계의 부분적 균열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40년대 후반 북한의 젠더전략은 참가형 전략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된 유일사상체계 수립과정에서 북한의 젠더전략에는 많은 수정이 이루어진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여성의 사회적 동원보다 현모양처형의 ‘모성’(motherhood)을 보다 강조하기 시작한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아내 김정숙을 본받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현모양처형의 모성적 여성-국민을 이상화된 여성상으로 제시한다. 즉, 1960년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정을 통해 북한은 건국 초기의 젠더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성별분업체계의 온존, 유지로 회귀하면서 여성을 전통적인 성역할 영역에 묶어두려는 분리형 젠더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여성을 전래의 성역할 속에 묶어두면서 모성에 충실한 새로운 여성-국민상을 창출하는 것이 유일사상체계의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사회는 건국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출산(재생산), 양육, 가사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과 증산과 사상투쟁과 같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여성의 임무를 함께 부과시키면서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해왔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문학에서는 고정적 여성상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앵겔스에 의하면 생산단위로서의 가족은 가부장제적 부부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소거되어야만 하고 남녀가 개별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채 대등하게 결합하는 새로

운 부부관계가 탄생해야 한다. 그러나 소련,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생산단위로서 가족의 개념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 북한은 가족 중심의 경제단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의 사회적 생산이 부가적으로 강요되었기에 여성은 양육, 가사노동과 사회적 생산을 모두 떠맡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sup>3)</sup> 대체로 이러한 이중고는 북한 여성에게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정책과 젠더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각 시기에 따라 미세한 정책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시기가 바로 국가수립시기(1940년대 후반)와 유일사상체계의 수립시기(특히 1970년대 초반)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에는 건국 총동원의 기치 아래 여성을 사회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여성을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배려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시기는 김일성 중심의 권력기반을 확립한 북한사회가 체제의 안정적 공고화를 위해 가정 내에서 여성, 특히 모성의 역할을 강조한 시기라는 점이 이 두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국가의 경우 국가 정책은 문학 작품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게 마련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문학은 국민 만들기를 위한 서사(the narrative of nation building)로서의 기능을 다른 체제의 국가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문학의 경우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문학을 통한 국가 정책의 집행이라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북한문학은 국가적 기획 아래 씌어진 민족이야기(the narrative of nation)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에서 작가의 사적 담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고 국가의 지원과 감독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 서사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sup>4)</sup> 그렇게 볼 때 북한문학에 나타난

3) 최영석, 「여성해방과 국가적 기획」, 『현대문학의 연구』 제23집, 2004.7. 305면.

4) 신행기, 「가상의 인격, 도덕의 광기」, 『민족이야기를 넘어서』, 삼인, 2003. 49~

여성인물의 분석은 결국 이상화된 여성-국민 창출의 서사(the narrative of idealized female-nation building)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북한희곡 전반에 걸쳐 나타난 이상화된 여성-국민 만들기의 양상을 폭넓고 심도 있게 다루는 작업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본고는 몇 편의 희곡작품을 통해 북한희곡에 나타난 이상적 여성-국민 만들기의 변화양상에 대한 분명한 논점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그것은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강화되고 유일사상체계가 준비되는 시기인 196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의 여성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이것이 북한 희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점을 희곡에 나타난 이상화된 여성-국민 만들기의 변화양상을 통해 해명하는 데 있다.

## 2. 1940~50년대 : 사상-생산 전사로서의 여성-국민 창출

해방이 되자 북한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이 기구에 의해 이른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 추진된다. 당시 북한의 현실적 토대를 식민지 반(半)봉건 사회로 규정한 북한 정권은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노동법령 제정, 남녀평등권법령 제정 등 일련의 민주개혁 조치를 단행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여성 문제의 경우도 반(反)봉건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여성의 성역할을 공적 영역으로부터 분리하는 가부장적 관습을 봉건적 폐습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타파해야 할 혁명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일정 토지를 여성에게 분할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한편, 1946년 6월에 제정된 노동법령은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동

일한 노동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조건에서 남녀동등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전산후 휴가와 유아 수유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확립하였다. 더 나아가 1946년 7월 30일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의 평등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교육의 권리, 자유 결혼 및 이혼의 권리, 재산 및 토지상속의 권리 등을 보장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시켰다. 1946년 8월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만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공민증을 교부받게 되었다. 1945년 11월에는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이 결성되어 여성의 사회적 동원을 위한 조직체가 만들어진다.<sup>5)</sup> 물론 사회주의 국가건설시기에 여성의 지위 향상과 해방을 위한 혁신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를 이행하는 것은 북한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베트남의 경우를 살펴보면 1945년 9월에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수립되고 1946년에 제정된 헌법 제9조에는 “여성은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유급 산후 휴가와 동일직종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장하는 등 진보적인 여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sup>6)</sup>

여성 관련 법령 제정과 제도 정비는 북한이 건국과정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동원을 위한 토대 구축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은 국가수립시기에 일제 말기의 전시 총동원체제에 비견되는 이른바 건국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여성 노동력의 동원에 열중하였다. 북한이 당시를 총력전 상황으로 인식한 것은 하루빨리 식민지 반봉건 사회를 극복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완수하여 안정적인 혁명 권력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인식으로 인해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공

5) 윤미량, 앞의 책, 69~78면.

6) 정연식 · 황여주, 「사회주의 혁명과 여성지위 변화 : 베트남 사례」,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4집 2호, 2004. 197면.

적 영역이 여성에게 대폭 개방되었다.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 동안 여성 노동자의 수는 1.8배가 증가하였고, 1947년부터 1949년까지 2년간 여성 기술자 수는 약 2배가 늘었다.<sup>7)</sup> 여성 착암수, 여성 트랙터 운전수, 여성 선반공 등과 같은 기술직 여성 노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1950년대 말까지 북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것은 사회적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혁명적 인간’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사회주의 국가수립과 6.25전쟁, 전후 복구건설의 격변기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사회적 동원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였다. 특히 혁명과 전쟁으로 인해 남성 인력의 손실이 커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동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 여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국가에 의해 ‘국민’으로 호명되었다. 이 시기에는 여성에게 가족의 구속을 벗어나는 것이 강조되었기에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으며<sup>8)</sup>, 혁명적 의식을 가진 ‘사상-경제전 전사’를 요구했던 것이다.

사상-경제전 전사로서의 여성 이미지는 특히 송영의 희곡 <나란히 선 두 집>(1948)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나란히 선 두 집>은 1949년<sup>9)</sup> 흥남의 한 공장 마을을 배경으로 나란히 이웃한 두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두 가정이 모두 공장에 나가 근로하는 혁명적 의식을 지닌 경제전 전사를 며느리로 두고 있고, 그로 인해 두 며느리는 완고한 의식을 지닌 시부모와 갈등을 빚게 된다. ‘왼편 집’에 사는 며느리 오금옥은 자신

7) 박영자, 『북한의 근대 여성주체의 형성(1945~1947)』, 『대동문화연구』 제46집, 2004. 308면.

8) 윤미량, 앞의 책, 135면.

9) <나란히 선 두 집>의 발표 시기는 희곡집에 1948년 2월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의 배경시간은 발표 시기보다 뒤인 1949년으로 되어 있어서 오기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작품에 ‘조선인민군 창설 1주년을 맞을 무렵’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오기는 아니고 의도적인 표기로 보인다. 참고로, 조선인민군은 북한 건국보다 앞선 1948년 2월에 창설되었다.



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시아버지(윤성식)를 두고 있으나 고루한 성역할 의식을 지닌 시어머니(김우순)로부터 공박을 당하는 입장이다. 반면, ‘오른편 집’에 사는 며느리 김고분은 반대로 시어머니(박삼례)에게 따뜻한 격려를 받지만 완고한 시아버지(전삼룡)로부터는 냉대를 받는다. 이러한 부모-자식 간의 세대 갈등을 통해 이 작품은 성역할에 대한 ‘완고한 인식/진보적 인식’의 대결이라는 젠더의식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북한 희곡에서 보기 드문 주제의식을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삼룡 : 별안간에 떡은 왜 하누. (통명스런 목소리다. 언제든지 그렇다.)

삼례 : 그 애가 좋아하니까 저녁 대신 해주자고...

삼룡 : 아주 정성이 하늘까지 뻗쳤군... 흥...

삼룡 : 흥, 저건 어떤 게 시애민지 며느린지 모르겠단 말야. 공장 다닌답시고 젊은 것은 꿈쩍 안 하고 늙은 시애미가 해다 바치는 것만 받아먹고, 그렇게 해주는 늙은 것이 글렀지, 영히... — ①

우순 :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인감.

성식 : 아니 그래, 연설 그만하고 어서 시작이나 하오. 애기가 좋아하는 거 사왔소. 그 애는 구운 것을 좋아합디다. 양념장 잘 해서 푸짐하게 줘 먹입시다.

우순 : 아니 새파란 젊은 것을, 더군다나 소 같은 것을 그냥 얹혀두고 늙은 나만 부려 먹으려우? 이건 집안이 거꾸로 돼도 분수가 있지.

성식 : 못난 소리 좀 작작해. 어디 그 애가 놀고 아니 하나, 그 애는 당당한 공장 여맹위원장이야. 그러니까 그냥 공장 다니는 거보다 더 바쁘지 않소. — ②<sup>10)</sup>

10) 송영, <나란히 선 두 집>, 『일체면회를 거절하라』, 평양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134~135면.

인용문 ①은 여성 노동자 김고분의 시부모 삼룡, 삼례와의 대화이고, ②는 여성 노동자인 오금옥의 시부모 성식, 우순과의 대화인데, 양쪽 모두 시부모 중 어느 한 쪽은 여성 노동자-며느리를 옹호하는데 비해 다른 쪽은 여성 노동자-며느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형국을 보여준다. 여성 노동자 고분과 금옥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처지지만 공장 노동자로서 경제전 전사의 직분에 충실할 뿐 아니라 공장이 파한 후에는 여맹의 교양 선전 활동에 열중하는 등 사상전 전사로서도 열성을 다한다. 건국 초기 북한 사회는 여맹을 중심으로 가정주부에 대한 교양 선전사업을 전개하였고 노력 동원이 조직되기도 하였다.<sup>11)</sup> 생산(중산)과 사상 활동에 헌신하는 ‘경제전 전사’, ‘사상전 전사’로서 고분과 금옥의 활약상은 건국 초기 북한 당국이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이상적인 여성-국민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렇게 이상화된 여성-국민과 갈등을 빚는 시부모의 봉건적인 완고함은 교정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금옥의 시아버지 성식은 여성 며느리-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분의 시아버지 삼룡에게 “먼저 이것을 고쳐야 하오. 케케묵었소 나보담도 당신은 더 하오. (길턱에 올라서며 공장 편을 가리키면서) 눈이 없어서 저게 보이질 않소? 저 하늘까지 치받쳐 솟는 굴뚝 연기를, 모두들 우리 공화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쓰고 있느냐 말요.”<sup>12)</sup>라면서 낡은 성별의식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낡고 봉건적인 성별 인식을 벗어던지고 혁명적인 여성-국민의 공화국에 대한 헌신을 적극 후원해야 하는 것이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이 풍미하던 당대 북한사회에서 국민의 임무였던 것이다. 이 작품은 우순과 삼룡이라는 낡은 성별의식을 가진 부정적 인물들이 세대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의식을 건전하게 전환하는 성격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sup>13)</sup>

11) 박영자, 앞의 글, 308면.

12) 송영, 앞의 책, 139면.

13) 리령, 『해방 후 연극예술의 발전』, 『빛나는 우리예술』, 평양 : 조선예술사, 1960. 36면.

북한 건국시기에 어머니의 모성애와 며느리의 의무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된 종래의 성역할보다 사상-경제전 전사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었던 정황은 <나란히 선 두 집>에서 김고분과 오금옥의 대화를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북한 건국시기에 북한 사회가 지향한 여성의 성역할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금옥 : 내 우리 어머니의 완고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볼까.

첫째, 아들이라면 평생 눈앞에만 놓고 살겠다는 ‘**좋은 모성애**’ 때문에 아들이 인민군대가 된 것을 집안의 영광이란 것보다도 혹시 다시 만나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야.

둘째, 우리 인민군대를 그렇지 않은 줄은 알면서도 그래도 속으로는 왜놈 때의 병정과 비슷한 것이겠지 하는 생각이 붙어있는 까닭이요.

고분 : 그건 우리 집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금옥 : 그러실거요. 더군다나 동무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급히 말끝을 돌려서 더 한층 쾌활하게)

셋째로는, **며느리라는 것은 그전같이 집안에만 붙어 있어서 시부모의 손발 노릇만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완고라오.** 그러니깐 이런 완고는 말로써 만으로 설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천으로, 즉 사업으로써 극복시켜야 된다는 거요.<sup>14)</sup>(강조, 인용자)

위와 같은 시어머니의 완고에 대한 금옥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모성애와 시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며느리의 의무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 개념은 수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두 집안의 며느리인 고분과 금옥은 건국시기에 북한 여성이 취해

14) 송영, 앞의 책, 145~146면.

야 할 사상-생산전 전사로서의 성역할 인식을 철저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노동자로서 생산전 전사의 역할에 충실하며, 밤에는 여맹(女盟) 간부로서 사상전 전사의 임무를 투철하게 실천한다. 이 작품에서 이들의 성역할은 거의 공적 영역에만 집중된다. 시부모의 불만과 이로 인한 며느리와의 갈등은 이러한 사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한 며느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시부모들은 ‘완고’한 사상을 지닌 사회적 교정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인민군대에 보낸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부모의 모성애는 척결되어야 할 가족 이기주의로 치부되고, 며느리의 봉양을 받으려 하는 시부모의 여성인식은 극복되어야 할 봉건적 완고로 평가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두 집안의 며느리들은 가정을 도외시하지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부모의 완고한 성역할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사상교양 사업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리라 다짐한다. <나란히 선 두 집>은 결국 두 며느리, 고분과 금옥이라는 인물을 통해 건국 총동원 시기의 북한의 이상적 여성-국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행동에서 나타난 이상적 여성-국민상은 가정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적 총동원 체제하에서 사상전, 생산전 전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건국 초기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북한 당국의 여성 평등권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북한에서 여성의 성역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희곡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1940년대 후반 북한 희곡에서 주로 다루어진 소재는 (1) 북한의 민주개혁, (2) 항일혁명전통, (3) 남한의 사회 모순, (4) 애국 영웅 이야기 등이 대중을 이룬다. (1)을 대표하는 희곡은 한태천의 <바우>(1946), 백문환의 <성장>(1948) 등이고, (2)를 대표하는 희곡은 박령보의 <장백산>(1947),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1948)이다. (3)을 대표하는 희곡으로는 송영의 <금산군수>(1949), 남궁만의 <하의도>, 함세덕의

<산사람들>(1949), 그리고 (4)를 대표하는 희곡으로는 김태진의 <이순신 장군>(1948) 등을 꼽을 수 있다.<sup>15)</sup> 이 네 가지 부류 가운데 여성평등권 확립의 문제는 (1) 북한의 민주개혁 범주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부류를 대표한 희곡들은 북한의 토지개혁 문제를 소재로 다룬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북한 민중의 2/3 이상을 농민이 차지하였기에 기본적으로 토지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주개혁의 쟁점이 된 것이고, 생산(증산) 문제도 전반적으로 공장보다는 농촌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시기의 희곡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공장 근로자의 생산 문제와 여성 평등권 문제를 포착하여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송영의 <나란히 선 두 집>은 중요한 희곡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희곡을 통해 우리는 1940년대 후반 북한이 제시한 이상적 여성-국민은 ‘경제전 전사’, ‘사상전 전사’의 형상이었고, 현모양처형의 여성상은 거의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적 여성-국민 형상이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소거하고 경제전 전사, 사상전 전사의 모습으로만 남을 때 그것은 사실 이상적 남성-국민의 형상과 별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당시 북한의 여성-국민에게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이 대폭 허용되었다. 이는 국가수립시기 북한 당국이 채택한 여성정책이 참가형 젠더전략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1950년대에 들어서 6.25전쟁과 전후복구건설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은 여성에 대한 동원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 씌어진 희곡들에 나타난 이상적 여성의 모습은 전쟁 승리와 전후 복구사업의 완수라는 국가적 목표에 헌신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이상적 여성의 모습이 대부분의 희곡에서 미미하게 다루어지거나 부수적 인물로 나타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sup>16)</sup> 전후 복구건설

15) 이상우, 「극양식을 중심으로 본 북한희곡의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11집, 2000. 383~385면.

16) 예외적인 경우로 전쟁기에 발표된 <어머니와 경찰병>을 들 수 있다. 이 작품

기의 대표적인 작품인 리동춘의 <새길>(1953), 류기홍의 <그립던 곳에서>(1954), 탁진의 <승리의 탑>(1955) 등을 살펴보면 영웅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이상적 주인공은 모두 남성 인물이다. 1953년 황해도의 '새길협동농장'의 성공담을 통해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새길>은 위원장 김철수를 중심으로 한 협동농장의 지지자들이 협동농장의 가입을 꺼리고 주저하는 최근성, 민씨 등을 설복하여 협동농장의 건설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요 갈등 축은 '김철수를 비롯한 협동농장 지지자/최근성을 비롯한 협동농장 미가입자' 사이에 형성되는데 무갈등 이론과 혁명적 낙관주의에 기초한 작품이어서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사이의 심각한 갈등양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부정적 인물들이 '부정적'이 되는 것은 단지 그들이 협동농장의 성공에 확신을 갖지 않고 회의하고 의심한다는 점에 있다. 이 작품에서 체대군인인 김철수는 새길협동농장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념에 찬 노력영웅으로서 작품의 주인공이며, 긍정적 여성상은 부수적 인물의 형상으로 제시될 뿐이다.

<그립던 곳에서> 역시 1953년 어느 제강소에서 전후복구건설에 영웅적으로 헌신하는 체대군인인 박갑철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60일 단축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낡은 전기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지를 둘러싸고 박갑철은 직장장 김순업, 기사장 안용심과 갈등을 빚는다. 박갑철은 원칙주의자이고, 김순업과 안용심은 공명심과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에 빠진 인물로 묘사된다. 결국 전후복구 사업에 있어서 속도보다도 원칙의 준수가 더 중요함을 역설하는 박갑철이 당의 방침에 충실한 모범국민이 되기에 극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반면, 이 극의 여성인물들인 제강소 노동자 명숙과 영자는 모범적인 남성 노동자들을 흠모하는 존재로서 남성 인물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그

은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혁명에 눈뜨게 되는 어머니의 성격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서 <피바다>와 유사성을 지닌 것이다.

너들은 남성 노동자들을 흠모한 나머지 그들을 위해 헌신한다.

영자 :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여고중까지 다닌 게 노동자한테 시집을 가  
겠느냐구 하나...

강순옥 : 그래서 너는 어떻게 맘 먹구 있나?

영자 : 언니, 나는 공장에 와서 배우구 느낀 게 많아. 한 때는 문학소녀로  
시두 좋아했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조용한 가정에서 찾아 볼  
려구 애두 썼는데. 아주 잘못된 걸 느꼈어요. 진정 아름다운 것, 그것은  
오직 노력자 속에서만이 볼 수 있구 느낄 수 있었어요.

강순옥 : 네가 길남 동무를 사랑하는 동기가 거기 있구나?

영자 : 솔직한 노동자 기풍에 많이 끌렸어요. 소박하구, 거짓이 없구, 진심  
스러운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길남 동무는 나를 그렇게 믿구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수.<sup>17)</sup>

영자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은 ‘인텔리’에 속하지만 노동의 매력에  
끌려 공장 노동자가 되었고 노동자의 기풍을 지닌 길남을 사랑하게 된다.  
한편, 명숙은 ‘노력 영웅’ 박갑철을 사랑하여 시험 부속품을 깎아주면서  
조력하다가 누명을 쓰고 분공장으로 쫓겨 가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여  
성 인물들은 노동자로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써  
이상적 국민이 되지 못하고 이상적 남성-국민을 흠모하는 협조자, 조력자  
로서만 자기 의미를 갖는다.

탁진의 <승리의 탑>도 그러한 점에서 <그립던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의 양상을 보인다. 정전 직후 어느 항구도시의 문화궁전을 건설하는 과  
정에서 원칙주의를 강조하는 젊은 건축가 리동식은 문화궁전의 건설기  
한에만 집착하는 자신의 매형이자 도 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강규필과 같  
등을 빚는다. 이 과정에서 리동식은 가족 관계와 원칙 사이에서 잠시 고

17) 류기홍, <그립던 곳에서>, 『은하수』, 평양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111면.

민하는데, 그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조력자는 그의 약혼녀인 시탁아소 소장 유선정이다. 리동식은 결국 건설기한을 지키는 것보다도 후대에 물려줄 훌륭한 문화궁전을 짓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자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만다.

유선정은 리동식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다움’에 관한 문제로 리동식과 가벼운 마찰을 빚는다.<sup>18)</sup> 리동식은 유선정에게 전통적인 부덕(婦德)을 요구하게 되고 유선정은 현대 여성의 역할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리동식이 현대 여성들도 조선의 여성들처럼 남편을 돕는 미덕을 배우야 한다고 말하자 유선정은 “물론 외유내강한 우리 할머니들의 품성을 배우고 있어요. 허지만 우리들의 생활은 항상 그렇게 조용하구 부드러울 수만은 없어요.”라고 대응한다. 그러나 극의 결말에서 리동식이 공명심과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강규필과의 갈등에서 승리하고 훌륭한 문화궁전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자 유선정은 다시 연약한 조력자로 회귀한다.

유선정 : 축하해요. 그 때의 꽃다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허지만 그 때 제가 여자다움진 못했어요.

리동식 : 아닙니다. 동무는 그대로 발랄하십시오. 내가 자비하지요. 우리는 서로 상처되는 개성으로 도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유선정 : 우리 생활에는 많은 숙제가 생길 거예요.

리동식 : 숙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강인한 힘이며 동지애의 불꽃이지요.<sup>19)</sup>

18) 리동식의 성격에는 상당한 모순이 존재한다. 그는 때로는 철두철미하게 고상한 사회주의적 도덕을 내세우지만 약혼자인 선정에게는 봉건적인 태도를 취한다. (박명진, 「전후 북한 희곡과 무갈등론」, 『한국희곡의 이데올로기』, 보고사, 1998. 331~332면.)

19) 탁진, <승리의 답>, 『승리의 탑, 우리는 언제나 함께 싸웠다』, 평양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151면.



유선정은 원칙을 고수하는 데 망설이는 동식을 강하게 비판했던 자신의 과거 행동을 여자답지 못한 것이었다고 자인하는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동식이 자신의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의 북한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인다. 즉, 북한의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다움’과 더불어 ‘강인한 사상을 지닌 동지적 관계’의 이중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1950년대 북한의 이상적 여성상은 여성다움을 유지한 채 사상전, 생산전 전사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1950년대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며 현재까지 상당부분 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1960년대 이후 : 모성적 여성-국민 이미지의 강조

건국 초기부터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이 여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대체로 사회적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혁명가로서의 여성이었지만, 이러한 여성관은 1961년경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1961년은 전후 복구사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당 내부의 종파투쟁이 김일성의 승리로 끝이 났음을 확인하고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이 시작될 것임을 천명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접어들어 북한의 젠더전략은 수정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즉, 같은 시기에 김일성은 여성들에게 7개년 인민경제계획에의 참여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1961년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행한 연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서 김일성은 여성들에게 후세를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육성하는 임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어머니로서 가정을 잘 지키는 역할이 여성의 기본적 임무라고 선언한 것이다.<sup>20)</sup>

1940~50년대에는 북한 여성에게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그다지 중시되지 않고 생산과 사상 전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서 성별 분업구조가 다소 균열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1960년대 이후에 와서 자녀와 남편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어머니, 아내로서의 여성, 즉 ‘모성적 여성-국민’이 강조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다시 말해, 성역할 구분을 무너뜨리고 여성을 공적 영역으로 대거 포용하는 정책 대신에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새삼 강조하면서 여성을 다시 사적 영역(어머니와 아내)으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940~50년대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와 권력의 성립과정에 있었던 데 비해 1960년대 이후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완비와 권력의 안정적 공고화가 이루어진 시기라는 상황적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40~50년대에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사업이라는 과제에 충실한 산업역군, 생산전사로서의 여성-국민이 요구되었지만, 1960년 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안정하고 김일성체제의 권력기반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현모양처로서의 여성-국민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체제와 권력의 공고화와 현모양처형의 모성적 여성-국민의 요청은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 것일까. 이 해답은 근대 국가와 가족의 관계에 대한 고찰에서 찾아야 한다. 근대 국민국가와 전통적인 가족주의는 병립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근대 국가는 가족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즉, 국가 권력의 세포 단위로서의 가족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효(孝) 개념을 국가보다 상위에 놓는 전통적 유교주의의 가족 개념은 깨어져야 하고 상하 위계 단위로서 국가와 가정의 관계로 가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국가의 하부단위로서 가족의 의미가 재정립될 때 여성은 어머니, 아내이기 이전에 먼저 ‘국민’으로 탄생해야 했다.<sup>21)</sup> 다음 세대의 국민이 될 자녀 교육에 충실한 현

20) 윤미량, 앞의책, 135~136면.

21) 홍양희, 「한국 : 현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만들기」, 『역사비평』 2000년 가을호.

명한 어머니(賢母, wise mother), 충직한 국민이 되도록 남편을 내조하는 좋은 아내(良妻, good wife)가 바로 현모양처형의 여성-국민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근대 국민국가의 이상적 여성-국민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근대 국가에서는 양육 주체로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이때의 양육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개념의 양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지식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술로서의 ‘모성술’(母性術, mothercraft)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모성의 역할은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과 관련된 자연적인 역할로 이해되었지만 근대에서의 모성은 각종 근대적 지식과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을 학습해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던 것이다.<sup>22)</sup> 이러한 근대적 모성술을 가진 어머니, 즉 현모(賢母)가 충량한 국민의 재생산을 위해 근대 국민국가에서 요구되었던 것이다.

김일성 중심의 권력기반을 확립한 북한은 특히 1960년대에 들어 충량한 국민을 재생산(출산)하고 양육할 어머니로서의 여성-국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이제 체제를 안정적으로 보위할 충성스런 국민의 재생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국가의 하위 세포단위로서 가정이 중요하고 그 양육자로서 어머니(모성)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북한에서 어머니, 모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세포단위를 국가체제의 중요한 하부단위로서 인식하기 때문인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일반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국가-가정의 상하 위계 체제를 수령을 정점으로 한 ‘사회주의 대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북한은 1960년대 유일사상체

368면.

22) 김혜경,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 1920-30년대 가족담론을 중심으로」,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김진균·정근식 편저), 문화과학사, 1997. 259~260면.

계 확립 이후 북한 사회를 아버지 수령과 어머니 당, 그리고 그 자식으로 서의 인민이라는 혈연적 관계에 기초한 정치적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다. 아버지 수령을 정점으로 하부의 인민대중에 이르는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확대된 가정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원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sup>23)</sup> 따라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유교적 가부장제 원리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대가족’ 개념을 설정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가정 내의 양육 주체로서 현모양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1960년대 이후의 북한 사회가 1940~50년대에 비해 보수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24)</sup> 한 사회가 모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사회의 개혁과 혁신보다 안정화, 지속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김일성 체제의 권력 기반을 든든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4의 권력부문으로서 ‘모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린다 커버(Linda Kerber)에 따르면, 모성(motherhood)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온화한 방법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국가 권력의 제4부문으로 평가받는다. 모성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가정 안으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사회를 통어할 수 있는 가정(모성)이라는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sup>25)</sup> 국가가 모성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데에는 루소(Rousseau)의 모성론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루소의 저서 『에밀(Emile)』(1762)에서 주인공 에밀은 아버지도 가정교사도 아닌 어머니에 의해 교육받는다. 즉, 아이의 초기 교육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루소는 소녀는 생물학적으로

23) 이미경,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 :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102호, 2004. 167면.

24) 정진성, 「현대 일본의 모성 인식」, 『모성의 담론과 현실』(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공편), 나남출판, 1999. 246~248면.

25) Kaplan, E. Ann, *Motherhood and Representation*, New York : Routledge, 1992. 23면.

로 어머니가 되도록 예정되었으므로 소년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인류의 생존은 **감정과 인간관계의 기술로써 가족을 접합하는(cementing the family) 여성의 기능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성은 주어진 역할에 적합하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즉, 루소는 여성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 모성 기능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루소가 모성이 가족 구성원을 결합시키는 조화와 화합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근대 국민국가가 사회적 안정과 통제를 위해 모성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그것을 국가 통치를 위해 활용하게 만드는 데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경우도 메이지 시대에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모양처형 여성-국민의 창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은 특히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는 ‘군국(軍國)의 어머니’, ‘황국(皇國)의 어머니’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어머니와 모성을 유별나게 강조하였다. 이는 모성이 전쟁이라는 피와 대량살육 이미지에 대한 심리적 보완물로 불가결하다는 점과 모성의 이미지가 국민통합의 기호로서 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sup>27)</sup> 파시스트 국가에서 국민통합의 기호로서 모성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극단적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에서 통치수단으로서 모성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근대 국민국가와 모성 담론의 밀착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정치권력이 안정화되면서 북한 문학은 모성 담론과 긴밀하게 결합하게 되는데, 희곡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령형상화 희곡 <우리의 어머니>(1970), <위대한 전환>(1973), 혁명가극 <남강마을 여성들>(1974) 등에서 그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26) 위의 책, 20~21면.

27) 가와모토 아야, 『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 사상』,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1999. 234~235면.

1960년대 후반에 북한은 현모양처형의 이상적 여성-국민 모델로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강반석 여사 따라 배우기’를 여성들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여성의 생활 교과서로서 『강반석 녀사를 따라 배우자』라는 책자를 수백만 부 발행하여 여성들에게 100번 읽기 운동을 강요하였다. 강반석과 김일성의 처 김정숙 등 김일성 가계의 여성들을 이상적 여성상으로 설정하고 북한 여성들에게 본받기를 강요한 것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사회 전체가 일원적으로 재편되는 유일 지배체제의 형성과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수령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김일성의 가계에까지 확대되면서 강반석과 김정숙이 북한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부각된 것이다.<sup>28)</sup> 그 일례로서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강반석을 모델로 삼아 이상화된 여성-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제시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은 인내, 순종, 검소, 강인함 등의 전통적 부덕에 자녀에게 혁명정신을 교육하고 혁명에 헌신하는 등 혁명성을 가미하는 수준에서 창조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문학예술 작품을 통해 재현되었다. 희곡의 경우에도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어머니>, <위대한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집체창작 희곡인 <우리의 어머니>는 강반석을 주인공 삼아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혁명적 모성의 형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강반석과 김일성(금성동지) 등 수령과 그 가계 인물이 직접 등장하기에 ‘수령형상화’ 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작품의 제목이 말해 주듯이 이상적 여성-국민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강반석을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강반석은 아들 금성동지가 영도하는 항일혁명운동을 내조하는 혁명의 보조자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다가 병들어 죽게 된다. 항일유격대의 지도자 금성동지의 어머니인 강반석은

28) 이미경, 앞의글, 154~155면.

때로는 어머니로서 자식의 혁명적 의식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처럼 자식과 동지들을 내조하고 뒷바라지한다.

금성동지 :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앉히신다.) 어머니의 몸이 말이 아니군요.

어머니 : 내 몸이 어쨌단 말이냐. (정색해지시며) 너 여기 무슨 일로 왔니?

금성동지 : 앉으시는 어머니를 두고 전... 어머니, 절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 그게 무슨 말이냐? 나라가 병이 들어 신음하는데 큰일을 벌려놓고 그래 나 때문에 여기에 왔단 말이냐?

금성동지 : 어머니...

어머니 : 만약 나 때문에 왔다면 당장 돌아가거라.

금성동지 : .....

어머니 : 넌 내 아들이자 조국의 아들이다. 넌 날 생각하기 앞서 조선의 수많은 어머니를 생각해야 한다.<sup>29)</sup> — ① (강조, 인용자)

어머니 : 가만! 단추가 떨어지는군! (단추를 달아주신다.)

계춘 : 이젠 머리가 희어지시는군요?

어머니 : 가는 세월이야 막을 수 없지.

계춘 : 어머니는 왜놈들의 등쌀에 더 늙으셨지요.

어머니 : 왜놈이 망하고 조선이 독립되면 젊어지겠지. (입으로 실을 끊으신다.) 다 됐네.

계춘 : 어머니!

어머니 : 부디 조심하게.<sup>30)</sup> — ② (강조, 인용자)

인용문 ①은 항일유격대 활동을 하다가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금성동지가 어머니의 깊은 병환을 알고 떠나기를 주저하다가 어머니로부터 따

29) 『우리의 어머니』, 평양 : 문예출판사, 1970. 73~74면.

30) 위의 책, 108~109면.

끔한 질책을 받는 장면이다. 항일혁명 지도자인 금성동지는 혁명의 수범이지만 그 역시 자식으로서 인간적 약점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약점을 교정해줄 사람은 교육자(양육자)로서의 어머니[賢母]이다. 인용문 ②는 금성동지의 부하인 계춘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나려 할 때 그의 옷에 단추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그의 옷에 단추를 달아주자 계춘이 감동하는 장면이다. 아들의 부하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유격대원들에게 감명을 주는 대목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성동지와 그 부하 대원들의 항일유격 활동을 내조하는 조력자로서의 아내[良妻]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들과 흡사한 장면은 집체창작극인 <위대한 전환>에서 다시 반복된다.

금성동지 : 동무들. 우리가 이만한 난관 앞에서 주저앉는다면 무장투쟁이 언제 실현될지 모릅니다.

모두 : 그렇지만...

금성동지 : 우린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나가야 합니다.

어머니 : (나서시며) 네 생각이 옳은 것 같다. (모두에게)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갈 길은 가야지.

모두 : **어머님!**

금성동지 : 어머님. 이번에 오셨던 길에 여기 며칠 계시면서 부녀회 사업을 좀 봐주십시오.

어머니 : 여기 일은 염려 말아.<sup>31)</sup> (강조, 인용자)

금성동지와 그 동생들인 철성과 영성, 그리고 어머니 강반석 등 수령 가족의 애국적 투쟁을 그린 이 작품에서는 특히 어머니 강반석이 금성동지를 비롯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훈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수행한다는

31) 『위대한 전환』, 평양 : 문예출판사, 1973. 34~35면.



점이 앞의 <우리의 어머니>와 상당히 유사하다. 유격대원들은 적진에 동료를 구출하러 가는 금성동지에게 신변이 위험하다며 말한다. 그러나 강반석은 금성동지의 원칙론을 편들면서 유격대원들에게 어머니로서의 가르침을 준다.

이러한 모성적 여성상은 <남강마을 녀성들>에서도 재현된다. 6.25 전쟁 시기 금강산의 어느 고지를 사수하는 인민군을 돕는 남강마을 여성들의 헌신적인 혁명정신과 애국심을 다룬 이 작품에서 여성들이 인민군을 도와 애국을 실행하는 방법은 모성적 행동을 통해 구현된다. 남강마을의 여성들은 고지를 지키는 인민군들에게 식량과 탄약 등을 날라주는 보급 지원 활동을 해줌으로써 국가에 헌신하는데, 특히 주인공 봉녀는 적군의 폭격에 의해 취사장에 불이 붙자 불타는 취사장으로 들어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밥 가마를 끌고나온다.

남성방창 : 고지의 전사들 생각하면서

역세계 싸워가는 남강의 어머니

조국에 바치는 불타는 마음

사나운 포화도 세찬 불길도 꺾지 못하네

◁ 덕만 취사장 안에서 부상당한 철호를 업고 나온다.

◁ 금옥, 녀성들 달려들어와 취사장에서 쌀가마니와 합지 등을 끌어낸다.

◁ 봉녀 가마를 내려놓고 쓰러진다.

◁ 마을 사람들 달려온다.

모두 : **어머니!**

(…)

봉녀 : 어서 고지에 오르자.

◁ 봉녀 밥 가마를 이고 앞장에 선다.

◁ 마을 녀성들이 그 뒤를 따라 고지로 올라간다.<sup>32)</sup> (강조, 인용자)

32) 가극 대본집 『남강마을 녀성들』, 평양 : 문예출판사, 1975. 33면.

불타는 취사장에서 끌고나온 밥 가마를 머리에 이고 인민군에게 보급하기 위해 고지를 오르는 봉녀와 마을 여성들의 모습은 국가에 헌신하는 모성적 여성-국민 이미지를 감동적으로 재현한다. 이 장면의 어머니 봉녀 역시 앞에서 <우리의 어머니>, <위대한 전환>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불타는 취사장에서 인민군의 생명줄인 밥 가마를 끌고 나오는 용감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어머니!”라는 감격적인 부르짖음을 이끌어내면서 추앙의 대상이 된다. 이 인용문들 속에서 어머니는 애국적 헌신으로 타인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존재이다. 문제는 이렇듯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감격의 대상이 다른 무엇이 아닌 어머니, 즉 모성적 여성-국민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어머니>, <위대한 전환>의 강반석이나 <남강마을 녀성들>의 봉녀는 혁명적 투쟁에 열성적으로 헌신한 인물 이긴 하지만 그들은 남성 인물처럼 무기를 들고 싸우는 방식이 아닌 혁명가의 나약한 마음을 꾸짖거나 유격대원의 떨어진 단추를 달아준다거나 고지의 인민군에게 밥을 지어 나르는 현모양처의 방식으로 혁명과 애국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통해 뜨거운 감격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현명하고 자애로운 혁명적 어머니의 이미지가 곧 ‘국가’ 또는 ‘민족’의 이미지로 직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문학 작품에서 현모양처형의 모성 이미지의 창출을 통해 국민적 통합과 사회 안정을 의도했던 것이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북한은 1940~50년대에는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이며 능동적 혁명가로서의 여성-국민 만들기를 추구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김일성의 권력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가정적인 어머니로서의 여성-국민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의 젠더전략이 1960년경을 기준으로 수정된 점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1940~50년대에 건국과 전쟁 수행, 그리고 전후 복구 사업 등으로 인해 국가 총동원체제를 가동하였고, 이로 인해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동원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이 시기 북한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사적 영역에서 해방시켜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참가형 젠더전략의 채택이 불가피하였다. 이 때문에 1940년대에 송영의 <나란히 선 두 집>에서처럼 가정을 시부모에게 맡기고 산업 전사와 사상 전사로 불철주야 활약하는 여성 인물이 희곡을 통해 재현되었던 것이다. <나란히 선 두 집>에 나타난 여성 인물(고분, 금옥)들은 가정에서 해방되어 공장과 여맹의 임무에만 충실할 뿐 아니라 며느리의 의무를 강조하는 시부모를 완고한 인물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의식구조를 교양사업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인물들은 북한의 국가수립시기에 사상전, 생산전의 전사로서 공적 영역의 임무에 투철한 이상적인 여성-국민의 형상으로 문학작품에 재현된 인물인 것이다. 1950년대 전후복구건설시기의 희곡에서는 특히 이상적인 남성-국민상이 강조되었고 여성-국민은 남성의 보조자나 조력자의 역할에 머무는 경향을 보인다. <그립던 곳에서>의 명숙, 영자, <승리의 탑>에서 유선정 등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나름대로 당시 사회의 이상적 여성 인물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남성 주인공 박갑철(<그립던 곳에서>)이나 리동식(<승리의 탑>)을 흠모하고 조력하는 데서 그들의 존재 의미가 정립되는 부수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건국 초기의 진보적 젠더전략이 1950년대에 들어서 보수적 젠더전략으로 조금씩 수정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김일성 중심의 권력체제가 완성되고 사회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북한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다시 사적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분리형 전략으로 수정된다. 수령을 정점으로 한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가

정 개념의 국가적 확대를 통해 국가와 가정의 결속 관계는 더욱 증대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가정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국가의 하위 세포 단위인 가정의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는 모성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가장 이상화된 여성-국민인 강반석을 전범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모성적 여성-국민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하였으며 문학작품을 통해 이상적 여성-국민의 서사를 확대재생산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1960년대 후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따라 그러한 문학작품은 특히 1970년대 초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희곡의 경우 그러한 사례를 <우리의 어머니>, <위대한 전환>, <남강마을의 녀성들>에 형상화된 현모양처형의 여성-국민으로서의 두 어머니(강반석, 봉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젠더전략이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 이상적인 여성-국민의 창출이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몇 편의 희곡을 통해 살펴보면, 1940~50년대가 국가수립, 전쟁 및 전후복구를 위한 국가적 총동원체제의 시기라는 특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북한 사회의 본질은 결국 거대한 국가 가부장제 사회라는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왔음을 확인하게 된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공식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을 예속적 존재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 마르크스적 여성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남녀평등과 같은 여성문제는 이미 국가수립시기에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간주하면서 여성을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영역, 즉 여성의 성역할 속에 영원히 가둬두는 국가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을 국가 가부장제 사회라고 보는 관점은 타당해 보인다.<sup>33)</sup> 북한 여성은 이러한 국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혁명전사, 산업전사, 현모양처를 겸비하는 ‘슈퍼우먼’이 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33) 오유석,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가부장제」, 『경제와 사회』 2001년 봄호. 97~99면.

1940~50년대의 사상-생산전 전사로서의 이상적 여성-국민은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1960년대 이후 현모양처로서의 이상적 여성-국민의 의무가 부가적으로 강조된 것이다. 여성에게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만의 사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혁명기에는 국가가 ‘싸우는 엄마 웃 틱(Ut Tich)’이라는 공식적 이미지를 내세워 이상적 여성-국민으로서 여성 전사의 모델을 본받기를 요구하고 대신에 행정기관 및 산업조직에 여성의 참여를 대폭 허용했던 반면에 혁명이 완수되고 난 후 국가는 사회의 전 분야에서 여성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국한시키게 되었다.<sup>34)</sup>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는 가부장적 체제를 여전히 유지, 존속하는 한계 내에서 국가가 여성에게 베푸는 제도적 시혜에 불과했던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이러한 여성정책과 이로 인한 여성-국민 창출의 서사가 희곡 작품에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북한 희곡에 나타난 여성 인물에 대한 분석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본고는 이상적 여성-국민 이미지의 형상이 1960년대를 전후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비교 관찰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폭넓은 희곡 작품을 대상으로 북한 희곡에 재현된 여성 이미지의 다양성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새로운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여성-국민, 현모양처, 모성, 젠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34) 정연식·황영주, 앞의 글, 201~203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송영, <나란히 선 두 집>, 『일체면회를 거절하라』, 평양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 탁진, <승리의 탑>, 『승리의 탑, 우리는 언제나 함께 싸웠다』, 평양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 류기홍, <그립던 곳에서>, 『은하수』, 평양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 집체창작, 『우리의 어머니』, 평양 : 문예출판사, 1970.
- 집체창작, 『위대한 전환』, 평양 : 문예출판사, 1973.
- 집체창작, <남강마을 녀성들>, 『남강마을 녀성들』, 평양 : 문예출판사, 1975.

### 2. 단행본 및 논문

- 가와모토 아야, 「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 사상」, 『모성의 담론과 현실』(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공편), 나남출판, 1999. 234~235면.
- 김혜경,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 1920-30년대 가족담론을 중심으로」,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김진균 · 정근식 편저), 문화과학사, 1997. 259~260면.
- 리령, 「해방 후 연극예술의 발전」, 『빛나는 우리예술』, 평양 : 조선예술사, 1960. 36면.
- 박명진, 「전후 북한희곡과 무갈등론」, 『한국희곡의 이데올로기』, 보고서, 1998. 331~332면.
- 박영자, 「북한의 근대 여성주체의 형성(1945-1947)」, 『대동문화연구』 제46집, 2004. 308면.
- 신형기, 「가상의 인격, 도덕의 광기」, 『민족이야기를 넘어서』, 삼인, 2003. 49~50면.
- 오유석,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가부장제」, 『경제와 사회』 2001년 봄호, 97~99면.
-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48~136면.
- 이미경,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 :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102호, 2004. 154~155면.

- 이상우, 「극양식을 중심으로 본 북한희곡의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11집, 383~385면.
- 정연식 · 황영주, 「사회주의 혁명과 여성지위 변화 : 베트남 사례」,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4집 2호, 2004. 197면, 201~203면.
- 정진성, 「현대 일본의 모성인식」, 『모성의 담론과 현실』(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공편), 나남출판, 1999. 246~248면.
- 최영석, 「여성해방과 국가적 기획」, 『현대문학의 연구』 제23집, 2004.7. 305면.
- 홍양희, 「한국 : 현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만들기」, 『역사비평』 2000년 가을호, 368면.
-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63~74면.
- Kaplan, E. Ann, *Motherhood and Representation*, New York : Routledge, 1992. 20~23면.



Abstract

**The Aspects of Idealized Female-Nation Building in  
North Korean Plays**

Lee, Sang-woo

In North Korea, the aspects of national gender policy directly influence female-nation building in writing plays. North Korea tri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female's working powers in 1940-50s, because there were some important inciden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country, the Korean war, the rehabilitation after the Korean war. Thus, North Korean plays had to represent idealized female-nation character as a fighter who works for the ideology and economic production of the State in 1940-50s. It were not almost described the female image in the private sphere in plays during the same time such as a play *Adjoining Two Houses* (나란히 선 두 집).

However, North Korea especially demanded to create female-nation character as a wise mother and a good wife in dramas after 1960s, because Kim Il Sung and North Korean politicians expected to create the maternal female-nation image of a wise mother and a good wife who contribute to stabilize Kim Il Sung's dictatorship system after Kim Il Sung won struggle to obtain political power in late 1950s. Thus, North Korean playwrights created many maternal female characters who bring up children and help her husband to make a faithful male-nation in their plays as like *Our Mother* (우리의 어머니), *the Great Conversion* (위대한 전환), and *Women of Nangang town* (남강마을 녀성들). In conclusion, North Korea requested a superwoman who is a fighter of production, a wise mother, and a good wife.



Key words : female-nation, a wise mother and a good wife, motherhood, gender, public sphere, private sphere

접 수 일 : 2005년 2월 28일

심사기간 : 2005년 3월 1~25일

게재결정 : 2005년 4월 9일(편집위원회)

K C I